

뉴스 & 뉴스

수재의연금 4억 모금

불교방송(사장 성낙승)과 불교TV(사장 정우성)는 8월에서 9월까지 한달여 동안 실시된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에서 각각 3억여원과 1억여원을 모금했다.

8월8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한 불교방송은 모금 총액이 3억3천3백만8천8백3십6원으로 집계되었고 수재의연금도 쌀 94가마와 의류 1천1십3만점 등이 기탁됐다. 8월7일부터 9월8일까지 모금방송을 한 불교TV도 1억1천7백5십8만2천5백9십4원이 모금됐다.

김주일 기자

파라미타 전복후원회

파라미타 전복지구(지구장 도영)는 10월17일 오후7시 전주 목민 부패가 등에서 파라미타 청소년 후원의 밤을 열고 '파라미타 후원회' (회장 남궁선)를 정식 가동키로 했다.

후원회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등 50여명을 목표로 회원 확보에 나서 현재 절반 이상이 가입한 상태. 재가자 중심으로 구성된 후원회는 재가자의 관심과 참여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청각장애인에 컴퓨터 교육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육을 1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청각장애인지원센터(회장 김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컴퓨터교육은 매주 토요일 컴퓨터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전라안 수화사랑동우회(시상 박종철)에서 32명의 자원봉사자가 파견, 교육을 도울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재진)는 7일 통도사 부산교원회에서 34차 총회를 열었다. 16개 지회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통일사업, 환경사업, 대불련제로 크게 나누어 북녘동포돕기, 월요법회, 환경교육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청정승가 기원 불교도 참회법회

'삼보의 정'을 훼손하며 승단의 위의를 실추하여 스스로 사자의 몸을 감는 무서운 죄업을 그치게 하소서. 12일 조계종 포교원 4층 회의실에서는 '청정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가 열렸다. 불교인권위원회 석필희 선우도량 등 7개 승가단체와 우리는선우 경련동 동산반야회 등 9개 재가단체 회원 4백여명은 발원, 결의문 낭독과 108배 등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도박승' 사건과 관련한 승단의 참회와 정진의를 다졌다. 이날 법회는 당초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계사측이 '일부 승려의 비리를 다시 들켜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해 장소를 변경했다. <김재경 기자>

오봉정사 납골당-동국대 장례식장 시설비 4억원씩 정부서 융자

납골당을 건립하고 있는 연천 오봉정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3천5백만원의 시설자금, 동국대병원에서 4억원의 병원장례식장 설치비용을 융자받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8일 납골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 납골당 3개소와 납골묘 2개소 설치자금으로 15억8천만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장례편의를 위해 신·중층 전문장례식장 6개소와 병원장례식장 1개소에 46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 납골시설은 신속 설비비의 50%가 지원되며 납골당 신축의 경우 표준규모(연건평 2백30평) 이상 건축 때 1개소당 5억원, 납골묘는 일정규모(50기)이상 설치 때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0.7%,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주지스님-보육시설장 겸직가능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보건복지부는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에서 해당 종교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격요건 미

었다는 견해도 있다. 우상의 목이 잘린 제우라는 피해가 없지 않았던가'며 이에 선량한 다수의 신도들을 해를 대 열에 몰아넣고 있다. 한때 불교계에서는 방화 불상과괴 등 해를 조직적으로 일으키는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설마, 종교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느냐는 말로 지나쳤다. 불교인들은 그동안의 해불사건에 대해 정신병 증상이 있는 광신도의 개인적 소행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혜불 부추기는 '하늘나라'

혜불 부추기는 '하늘나라' 종교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느냐는 말로 지나쳤다. 불교인들은 그동안의 해불사건에 대해 정신병 증상이 있는 광신도의 개인적 소행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목탁 소리

종교간 화합은 아직 멀었다 보다. '실정법상 타종교의 숭배물을 훼손·철거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며 용기없음에 한탄할 뿐이다.' 9월초 발행된 개신교계의 한 신문인 '하늘나라'에 실린 사설의 한 구절이다. 사설의 제목은 '전국도 우상제거 앞당기자'. 개신교 일부 교단이 타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긴 했지만, 혜불을 선동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생각도 못했다.

혜불 부추기는 '하늘나라'

혜불 부추기는 '하늘나라' 종교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느냐는 말로 지나쳤다. 불교인들은 그동안의 해불사건에 대해 정신병 증상이 있는 광신도의 개인적 소행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체질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 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체로 읽어보니 배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급(신결)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나 후에는 눈썹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사치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활짝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고통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화재-성보도난 대비 보험드세요” 보험사들 사찰에 ‘손짓’

해동·동부화재·삼성생명 잇달아 상품개발

불교계를 겨냥한 보험상품들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유령보험회사들은 사찰의 화재, 귀중품 도난은 물론 사찰 종사자(스님포함)들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불교계를 향한 영업의 길을 트고 있다. 가장먼저 불교관련 보험을 내놓은 해동화재의 주력 상품은 '사찰화재보험'. 1년형 소멸성과 3~5년 장기보장성 등 2종류의 사찰화재보험은 3년전부터 판매 시작 2백개 사찰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과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 받은 동부화재도 지난달부터 사찰의 화재는 물론 각종 배상책임과 상해도난위험에 대한 담보를 묶은 '사찰종합보험'을 개발해 시판에 들어갔다. 동부화재의 사찰종합

보험은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화재담보와 사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담보, 스님들과 종무원, 사찰을 찾은 신도들의 상해(교통사고 포함)등에 대비한 상해담보, 사찰내의 문화재를 비롯한 귀중품의 도난을 대비한 도난담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담보에 대해 선택적인 가입도 가능해 사찰의 형편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ytlim@buddhania.com)

조계종포교원-군승단 신교대법당 직접 건립

내년부터 신병교육대 법당을 포교원과 군승단이 직접 짓는다. 포교원은 10월 '98년부터 신교대법당을 포교원과 군승단이 지어 군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군법사를 범죄와 징병위문 등 포교활동에 전념케 하고, 건축물사과 관련해 불미스런 사건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포교원은 내년에 신축할 3개 신교대법당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2~3개의 표준설계안을 마련 여러 개의 법당을 지을 계획이다. 또 신교대법당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후 신교대법당 건립에 예산을 증점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BBS 후원회 확대 24일 '대법회' 열어

불교방송후원회(회장 율주스님)는 24일 오후3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후원회 확대 개편 발족 대법회'를 봉행한다. 후원회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새 출발 다짐을위해 열리게 되는 이번 법회에서는 후원회장 율주

승가대 학인스님 농성

총무원장 퇴진 '요구'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율주스님의 사퇴를 요구하며 9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총무원 1층 회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강하) 소속 1백60명은 9일 낮 12시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현 승 율주 총무원장은 정종의 뜻을 모아 이룩된 종단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총사퇴하라'는 성명서

통도사 VR홈페이지 컴덱스코리아에 출품

가상현실을 구현한 사찰홈페이지가 세계 최대규모의 대중적 컴퓨터 관련 전시회 '컴덱스코리아 98'에 출품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현데이터시스템은 5월~9월 서울 코엑스전시관에서 개최된 '컴덱스코리아 98'에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기법이 도입된 통도사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통도사 홈페이지는 미국 라이브 픽처(Live Picture)사의 이미지 처리방법을 도입, 교계 최초로 구현된 것. 통도사 가상현실 홈페이지는 일주전에서 금강계단까지, 전각보기 등 3단계로 이뤄져 체계적인 사찰관람효과를 보였다. 도필선 기자

승가대 학인들의 농성

승가대 학인들의 농성 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의견표출을 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명분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이며, 하물며 계율과 법도를 근본으로 삼는 출세간에서야 더욱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학인스님들의 이번 농성은 명분정립이 아쉬울하다. 농성장 진입과 함께 당초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한 하루가 안돼 새로 수정본을 발표하고 이어 또다시 하루가 지나서 '제1차 성명서'라는 유인물을 내면서, 물연

승가대 학인들의 농성

승가대 학인들의 농성 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의견표출을 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명분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이며, 하물며 계율과 법도를 근본으로 삼는 출세간에서야 더욱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학인스님들의 이번 농성은 명분정립이 아쉬울하다. 농성장 진입과 함께 당초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한 하루가 안돼 새로 수정본을 발표하고 이어 또다시 하루가 지나서 '제1차 성명서'라는 유인물을 내면서, 물연

“조상의 산소자리가 좋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홍합의 축복이 있는데 반하여, 나쁘면 질화와 패망을 가져오고야 만다는 음택(산소)풍수사상!” “지금 조상님의 산소가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산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인기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업에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리고,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병환이 깊은 사람들이 완쾌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오고 있음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께서 배부시는 크나큰 가피력일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방법 산소 좌,우와 앞쪽에 봉분은 건드리지 않고 佛法(법법)을 물어드리는 방식입니다. 1. 황동관 필레만다라 2. 황동관 금강진타다라니 3. 황동관 묘법연화경만다라니 4.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금강진타다라니 5.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1,2,3번은 황동관위에 세워진 만다라와 탑다라니가 산소를 바라보도록 세워서 묻습니다. ◆ 4,5번 공단천안에는 위례를 써서 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안치시킨후 물어드립니다. <이때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써서 넣은 분들에게만 주로 발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이름과 자녀를 이름들 같이 써넣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의 성지관음회 (회장: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부산: 모문 포교원 ☎(051)864-3740 “모든 풍수지리가 미신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산소처방으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에 일단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경우이든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직계조상님 한분 산소만이라도 해드려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산소 1봉(기) 처방비용 : ₩400,000 (합장이나 쌍봉은 1봉로 봅니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놀로지와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신속히 분해합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결(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족화합물의 성분이 신결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생시계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결(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정부 조건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흐름, 침의 흐름, 약리작용의 세기까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땀냄이 끈고 딱딱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갈 것 같다 14 말비덕이 갈라지거나 트고 굵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빈기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감성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